

# 2024학년도 재외국민 면접시험

## (공통/전 모집단위)

※ 제시문 숙지 시간 20분, 면접시간 10분입니다.

**【문제 1】 다음의 각 제시문을 잘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동물 실험은 의학 및 과학적 목적을 위해 동물을 사용하여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동물을 해부하여 생체를 관찰하고, 동물의 신체에서 의약품의 원료를 채취하며, 새로운 약이나 치료법의 효능과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을 포함한다. 동물 실험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행해졌다. 16세기 인체 해부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동물 해부 연구는 의학의 기초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의예과만 <가> 지문 추가]

**<나>**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동물은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철학적 관념이 우세했다. 근세에 이르기까지 동물 복지와 같은 것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동물을 마치 시계와 같이 어떤 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기계처럼 여겼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의 동물들을 마취나 진통제 처치도 하지 않고 생체 해부를 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지만, 인간 뿐 아니라 동물에 관해서도 어떤 일은 해도 되지만, 어떤 일은 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이 합의는 바로 동물의 권리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최소한 공유되고 있는 생각이다.

**<다>** 감성 인식 로봇 ‘페퍼’는 인간처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표정 변화를 관찰하여 슬픔이나 기쁨 등의 감정을 파악하고 목소리의 높낮이와 떨림 등으로 상대방의 근심을 감지한다. 페퍼의 정서적 기능은 이미 유아 수준을 뛰어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감성 인식 로봇은 최근 가장 ‘인간적’ 이라고 생각할 법한 아이 돌봄이 역할도 맡고 있다. 자신을 웃게 하고 대화도 나누는 유일한 존재인 로봇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보이는 것은 어쩌면 자명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미래 가정이 로봇 중심으로 재편되는 데에 대한 우려를 보이기도 한다. ‘로봇이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여전히 회의적인 답변을 내놓는 이들이 있지만, 정작 로봇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로봇을 가족 같은 존재로 인식한다.

**<라>**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인공 지능 연구소 소장 로드니 브룩스는 로봇 공학의 가장 본질적 특징으로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 간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로봇 진화는 ‘인간되기’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는 로봇 공학과 뗄 수 없는 것이 곧 인간학이라는 것을 뜻하는 한편,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로드니 브룩스는 언젠가 로봇이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문제 1-1】** 우리는 동물의 권리를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문제 1-2】** 【문제 1-1】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로봇의 권리도 인정할 수 있는가?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윤리	차우규 외	금성출판사	2018	59-60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8	74-76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18	196-197
	독서	방인호 외	미래엔	2018	136-140

**[출제 의도]**

최근 생명과학 등의 발달에 힘입어 동물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며, 동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 동물권의 정립은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동물권에 대한 공감대는 크게 형성되고 있다. 한편, 기술공학과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로봇은 인간의 보조적 수단에서 노인과 아이 등과 함께 하는 반려봇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로봇권에 대한 언급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서는 과거에서 현대까지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토대로 현대에서 미래사회의 문제가 될 로봇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추론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이를 통하여 수험생의 동물권과 로봇권에 대한 이해 이면에 전제되어 있는 인성과 가치관의 단면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양자의 공통점과 차별점을 변별해 내는 안목과 동물권과 로봇권을 주장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이면에 전제된 인간의 권익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견지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인성 및 가치관에 대한 면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항 해설]**

현대사회로 접어들며 동물권(動物權, animal rights)의 문제가 부각되어 비인간동물 역시 인간과 같이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니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동물권은 단일주의 동물권과 계층주의 동물권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동물이 하나의 가치로서 음식이나 옷의 재료, 실험 도구나 오락을 위한 수단으로서 쓰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인간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개체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때문에 이들은 동물의 희생을 피하기 위해 채식을 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후자는 동물의 권익을 옹호해야 하지만, 사람의 편의를 위해 도축의 문제는 허용된다는 점에서 전자와 구분된다.

한편 기계공학과 A.I. 인공지능의 발달에 힘입어 로봇은 단순한 기능적 보조 수단의 단계를 넘어 인간의 생활 속으로 파고 들며 로봇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처럼 사람과 친숙해 지고 있다. 다가올 미래에는 인공 생명과의 관계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할 수도 있다. 로봇과학자 로드니 브룩스는 언젠가 로봇이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브룩스는 이것이 현실이 될 때, 인간을 위해 이들 로봇을 인공 노예나 대체 노동자로 불리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물을 노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로봇과학자인 시게오 히로세는, 지능을 갖도록 설계된 로봇이라면 그 어떤 로봇도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로봇이 이기적이거나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배제한 채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 또는 인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인의 법률관계를 규정한 민법도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안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4조)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자연인(自然人)인 사람과

의제된 법인法人만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인공 지능 로봇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더라도 감정을 담고 있지는 않다. 고통을 느끼지도 않는다. 물론, 고통을 프로그래밍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신경계의 통증을 유발하는 형태의 고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기때문에 동물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 「동물보호법」이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동물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의 일부로서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단계가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로봇공학자들은 우리 인간에게 윤리적 난제를 제기하지만, 미래 사회에는 로봇에게 합당한 권리 곧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답을 피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로봇이라는 새로운 타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철학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론에 대한 성찰이 더 절실할 것이다.

### (문제 1-1 평가기준)

수업생이 동물권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입장에 따른 것보다는 왜 동물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혹은 부정해야 하는지의 논거와 논리적 전개가 판단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 동물권/로봇권에 대한 입장 개진 이면에 전제된 인간 이해가 절대시 되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간주되는 것은 감점의 요인이다.

상 : 인간 이해를 전제로 동물권/로봇권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점을

충분한 근거 위에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

중 : 동물권/로봇권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점을 나름의 근거를 토대로

설명한다.

하 : 동물권/로봇권에 대한 논거도 논리성도 없이 개인의 모호한 의견을

개진한다.

### [추가질문]

(1) 동물의 권리와 복지는 동물과 동물을 기르는 인간 중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가?

(2) 로봇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 등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 (문제 1-2 평가기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속에서 확장 정립되고 있는 동물권과 현재 조심스럽게 제기되어 미래 사회의 쟁점이 될 로봇권을 어떻게 대비시키며 인간의 권리와 상충하지 않는 대안과 지혜로운 해법을 제시하는지를 살펴본다.

상 :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변화해 온 동물권에 대한 유비 속에서 로봇권에 대한 인정 가능성을 설명

한다. 혹은 기술적 한계 등 로봇권에 대한 비인정성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중 : 나름의 판단 기준과 관점을 나름의 근거를 토대로 로봇권을 인정 혹은부정하는 입장을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하 : 로봇권에 대한 논거도 논리성도 없이 개인의 모호한 의견을 개진한다.